

이차전지·바이오 인프라 구축·디지털산업 혁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미래 먹거리 산업 발걸음 통해 바이오, 이차전지, 디지털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경제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이차전지 특화단지과 첨단 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 디지털산업 혁신을 통해 전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주요 성과: 첨단산업 육성 기반 강화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실시간 고도분석센터(369억원)와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84억원) 등 연구인프라 공모사업에 선정돼 새만금 특화분야(광물가공·리사이클링) 초격차 기술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R&D혁신 허브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서는 바이오 기업 30개사를 유치하며 레드바이오 전용펀드(1,274억원)를 조성했다. 또한,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와 메카노바이오 실증센터를 개소해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높였다.

디지털산업의 경우, 전북형 디지털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와 AI융합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 특히, 농식품 메타버스 기술 실증사업을 통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했다.

▲2025년 중점 추진 과제

전북자치도는 2025년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이차전지 대학원 설립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해 현장 맞춤형 핵심인

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차전지 벤처펀드 확대 조성과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중심의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바이오 기업 150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학·연·병·관이 협력하는 전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 얼라이언스 추진단을 운영한다. 또한,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200억원 지원하고,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레드바이오 분야(의약품·의료기기)기업 육성을 위해 1,274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더불어 '전북형 디지털혁신거점'을 구축하고 IT·SW기업 취·창업 연계 전문인재 양성,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산업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형 디지털거버넌스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력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미래산업 육성의 기대효과

이차전지, 바이오, 디지털산업의 발전은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산업 다변화를 통해 전북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 출범 및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현판식

올해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총력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통해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레드바이오 분야 전용펀드 조성
전북형 디지털혁신거점 구축



디지털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 협약



바이오 특화단지 발표평가 리허설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출범



군산시 대장봉 전망대